

-(으)ㄴ/는 판에

이런 판국에

절박한 상황을 제시한 뒤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지적합니다. 판은 '형국, 판국'이라는 뜻으로, 대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 판에	바쁘다 → 바쁜 판에
동사	-는 판에	망하다 → 망하는 판에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판에
상황은 반드시	급박하거나 절박함	시간도, 돈도 없음
뒤 절	어울리지 않는 일	무슨 여행이나
격식 있는 형태	-(으)ㄴ 마당에	떠날 마당에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에는 -는 판에, 형용사에는 -(으)ㄴ 판에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판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상황은 급박하거나 절박해야 합니다. 시간도, 돈도,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: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여행이나.

뒤 절은 그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말하며, 수사 의문문이나 나무라는 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구어적이고 직설적인 문체입니다. 더 격식적이고 덜 흥분한 느낌의 -(으)ㄴ 마당에와 가깝습니다.

■ 예문

- 1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여행이나.
- 2 회사가 어려운 판에 임금을 올려 달라니요.
- 3 불이 난 판에 짐부터 챙기고 있었다.
- 4 시간이 없는 판에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요?
- 5 부품도 못 구하는 판에 직접 만들겠다니 무리다.
- 6 다들 밤새우는 판에 혼자 먼저 갈 수는 없지요.

■ 비교

-(으)ㄴ 마당에
아주 비슷합니다. 마당에는 격식적이며 결정적인 국면을 나타내고, 판에는 구어적이고 흥분한 느낌이며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

떠날 마당에 무슨 말이 필요한가. (격식) / 바쁜 판에 무슨 여행이나. (구어)

-(으)ㄴ/는 데야
데야는 상황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고, 판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.

우기는 데야 어쩔 수 없지. (포기) / 바쁜 판에 무슨 여행이나. (당치 않다)

-(으)ㄴ/는 이상
이상은 확정된 사실을 받아 의무를 말하고, 판에는 나쁜 상황을 받아 제안을 거절합니다.

시작한 이상 끝내야 한다. (끝내야 한다) / 시간이 없는 판에 다시 하자고? (말도 안 된다)

■ 주의

- ✗ 여유로운 판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.
- 여유로운 김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.
- 판에는 급박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.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반대할 거리가 없습니다.
- ✗ 부품도 못 구하는 판에 직접 만들는다니 무리다.
- 부품도 못 구하는 판에 직접 만들겠다니 무리다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하며, 여기서 의도는 -겠다니로 나타냅니다.
- ✗ 시간이 없는판에 다시 하자고요?
- 시간이 없는 판에 다시 하자고요?
- 판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서 띄어 씁니다.